



고창군산림조합, 군에 원목효도의자 100개 기증

고창군산림조합(조합장 김영건)이 최근 고창군청 현관 앞에서 고창군민을 위한 원목효도의자 기증식을 열었다. 이번 기증행사는 어버이날과 가정의 달을 기념해 마련된 것으로 고창군산림조합은 지난 2015년부터 매년 100개의 효도의자를 기증해 왔다.

기증된 원목효도의자는 부인면 검신리 검곡마을의 74개 소의 마을 안길, 시장길 버스 정류장 주변 등에 설치되어, 보행이 불편한 지역 어르신들과 주민들의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예정이다.

특히, 원목효도의자는 벌채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원목 부산물을 활용해 제작된 제품으로 지속가능한 지원수단과 사회공헌을 동시에 실현한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기후 위기 대응과 자원절약이라는 환경적 가치를 함께 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김영건 고창군산림조합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번 기증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효도의자가 설치된 장소마다 어르신들의 발길이 머무는 힘터가 되었다”라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도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고창군민이 더욱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교육지원청, 전 직원 청렴실천 결의·서약식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한숙경)은 최근 고창교육지원청 4층 시청각실에서 교육장을 비롯한 소속 직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실천 다짐 결의 및 청렴서약식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청렴으로 더 새로운 고창교육’ 실현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대표자의 청렴 실천 결의문 낭독과 함께 전 직원이 선서를 진행하고 참석자 모두가 청렴 서약서에 서명하여 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

청렴실천 결의문은 △법과 원칙 준수 △부정 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 △갑질 행위 금지 및 신뢰하는 조직문화 조성 등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청렴의 가치가 담겼으며, 직원들이 서명한 청렴 실천 서약서를 각자 책상 위에 비치해 일상 속에서 청렴을 실천 다짐하는 계기를 삼고자 했다.

한숙경 교육장은 “이번에 함께 서명한 서약서는 고창교육을 더욱 따뜻하고 정직하게 만드는 마음의 약속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무주교육지원청, 흡연 예방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강)은 최근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22개교 보건교사(보건업무담당교사) 20명을 대상으로 무주교육지원청 2025년 흡연 예방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초빙하여 가장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신종 담배(전자담배, 가열담배, 일회용 베이프)의 유형을 살펴보고, 그 유해성을 인식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통담배(연초)와 그 유해성에 있어서 차이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해함에 대한 인식이 낮은 최신형 전자담배에 대해 알아보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참석 교사들은 말했다.

또한, 무주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의 협조를 받아 무주교육지원청 직원들을 대상, 금연예방프로그램(박자운 주무관)과 일상 건강 체크 지표인 혈압, 혈당, 폴레스테롤 등을 체크하여 자기 건강지수알기 프로그램(하은혜 주무관)을 실시했다.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 때문인지 직원들의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무주교육지원청 이강 교육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우리 무주학생들의 흡연 예방 교육을 위해선 일선 담당 교사들이 이 최신의 트렌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능동적인 춤향, 행동하는 춤향 되고파”

제95회 ‘미스 춤향 진’ 김도연씨… 전 세계서 600여명 지원

대한민국 대표 지역체계를 겸비한 전통미인이 제95회 춤향제 글로벌 춤향선발대회를 통해 새롭게 탄생했다.

이번 춤향선발대회에는 전 세계에서 600여명이 지원 1~2차 예선을 거쳐 외국인 1명을 포함한 총 38명이 본선에 올라 경연을 펼쳐 △진 김도연씨(20, 강원 원주) △선 이자은씨(21, 서울) △미 정채린씨(26, 용인) △정 최정원씨(24, 서울) △숙 이가람씨(22, 서울) △현 미아 씨(25, 에스토니아)가 뽑혔다.

이외에도 △특별상인 글로벌 앤버서더에는 김소연씨(23, 캐나다)과 현혜승씨(24, 미국) △코디네이션 상에 박세진씨(22, 서울)이 선정, 9명의 수상자들은 1일 오후 2시 남원시청 2층 회의실에서 남원시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제95회 미스 춤향 진에 뽑힌 김도연씨는 “남원 춤향제가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꿈만 예기 최봉신 같은 주체성이 강한 능동적인 여성의 계셨기에 지금까지 춤향제가 유지됐던 것 같다며, 그 정신과 열을 이어받아 능동적인 춤향·행동하는 춤향이 되고 싶다.”라고 포부를 전했다.

특히 김씨는 춤향 진의 영광이 제게 주어져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며, 지난해부터 선발대회가 세계 대회로



우뚝 선 만큼 앞으로 남원, 그리고 춤향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능동적인 춤향 진이 되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한복을 일상적으로 많이 입지 않은 부분에 대해 안티캡에 생각한다”면서 “남원이 한복 도시로 표방하는 만큼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는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 한복 도시 남원을 국제적으로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부안해경, ‘등대 직원’ 첫 선정 · 승진임용식 표창

부안해양경찰서(서장 박생덕)는 최근 자체 기획제도인 ‘등대 직원’을 본격 운영하며 영예의 첫 선정자 표창 수여와 승진임용식을 함께 진행했다.

이번 ‘등대 직원’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빛을 비추며 조직의 항해를 이끄는 인물을 상징하는 제도로, 단순 실적 중심의 평가를 넘어서 책임감과 혁신을 보여준 직원을 매달 선정해 실질적인 인사 포상 혜택을 부여한다. 영예의 첫 ‘등대 직원’으로는 212정 양국환 경사가 선정됐다.

이날 임용식에서는 △경비구조과 이연지(경장→경사) △수사과 홍영태(경장→경사) △212정 양국환(경장→경사) △위도파출소 박상윤(경장→경사) △P-132정 박도희(경장→경사) 5명이 승진 임용됐다.

박생덕 서장은 “등대 직원 제도를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 빛을 내고 있는 직원들의 노력이 조직 전체의 성장을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글로벌 시니어 춤향 선발대회 성료… 대상에 임혁희씨

남원시와 전민일보가 공동 주최하고 남원시노인복지관이 주관하는 글로벌 시니어 춤향 선발대회가 지난 4월 30일, 남원 춤향문화회관 대강당에서 500여 명의 관람객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시니어 춤향 선발대회에는 총 42명의 여성 어르신이 서류를 접수했으며, 서류심사를 거쳐 서울 2명, 수원 1명, 인천 1명, 기흥 1명, 인천 1명, 광주 2명, 남원 1명, 전주 1명, 부안 1명, 순창 1명, 순천 2명, 부여 1명, 대안 1명, 전국의 시니어 여성 총 16명이 본선 무대에 진출해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무대 이에서 화려하게 펼쳐놨으며, 남원시 홍보대사 이원종 배우 등 5명의 심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수상자는 △대상 임혁희(광주광역시, 250만원/부상·공기청정기 1대) △금상 정영자(순창군, 우정상 수상 공기청정기, 100만원) △은상 정명희(수원시, 70만원) △동상 정진암(순천시, 50만원) △특별상 전북일보상에 김수린(부안군, 50만원) 등이



각각 수상했으며, 본선 수상자(우정상 제외)의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상(10만원)이 주어졌다.

수상자들은 대회 이후 1년 동안 남원시노인복지관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남원시가 주관하는 다양한 행사에서 남원을 대표하는 시니어 춤향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꿈드래장애인협회 남원지부, 장학금 100만원 기탁

남원시는 최근 꿈드래장애인협회 남원지부(지부장 임광호)가 관내 어려운 학생 2명에게 장학금 100만원(각 5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꿈드래장애인협회 남원지부에서 수시로 마련한 뱃튀기 판매 수익금을 통해 자체적으로 기탁했으며, 협회는 작년에도 연탄 1,000장 및 난방유 200L 등을 취약계층 27가구에 지원한바 있다.

임광호 지부장은 “ه반기에도 어려운 학생 2명을 선발, 장학금을 수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트로트 가수 장영우, 익산시 홍보대사로 공식 위촉

익산시는 최근 시청에서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고, 트로트 가수 장영우를 공식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익산 출신인 장영우는 2020년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트롯’을 통하여 대중에게 이름을 알린 이후, ‘袈의 풀센터’, ‘불타는 트롯맨’, ‘불타는 장미단’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꾸준히 인지도를 쌓아왔다.

어릴 적부터 판소리를 배운 장영우는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재학 중이며 2023년 제23회 박진영 판소리 명창·명고대회에서 장원을 차지하는 등 전통과 현대를 이우는 드라마로 기우로는 기수로 주목받고 있다.

장영우는 오는 3일 개막하는 2025 익산시서동축제에서 축하 공연을 통해 홍보대사로서 첫 공식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익산의 대표 축제를 찾은 시민과 관람객들에게 익산 출신 가수로서의 자부심과 함께 도시의 매력을 알리는 특별한 무대를 선보일 계획이다.

장영우는 “많은 시민과 관람객들에게 익산 춤향제를 찾은 시민과 관람객들에게 익산 출신 가수로서의 자부심과 함께 도시의 매력을 알리는 특별한 무대를 선보일 계획이다.



장현을 익산시장은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으로 성장하고 있는 장영우씨를 익산시 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돼 매우 뜻깊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준 기자



남원 도통동, 취약계층 대상 밀반찬 지원

남원시 도통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소선자)는 1일 1가구 소통행정을 통해 빌려준 관내 독거노인,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해 식사 준비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밀반찬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이 사업은 도통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특화사업으로, 2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두 차례 진행, 식사 취약계층 17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밀반찬을 제공하며, 대상자들의 안부를 확인하여 따뜻한 돌봄을 실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주천면 행복나눔터, 반찬배달 등 행사 진행

남원시 주천면(면장 노학순) 관계자는 관내 지리산일번지 행복나눔터(위원장 정호진, 이하 나눔터)가 관내 취약 계층 반찬배달 및 생활모니터링 행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반찬배달 행사는 나눔터의 10여명의 봉사원들이 참여해 총 20명의 관내 독거노인들에게 직접 만든 반찬을 배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었다.

또한, 나눔터의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농촌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총 1억원의 예산으로 반찬배달, 문화복지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 반찬배달과 생활모니터링을 통해 독거노인들의 건강과 안전을 직접 점검해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사회적 연대감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주교육지원청 이강 교육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우리 무주학생들의 흡연 예방 교육을 위해선 일선 담당 교사들이 이 최신의 트렌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농협 남원시지부-남원시, 쌀 소비 촉진 캠페인

농협 남원시지부(지부장 오영석)와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최근 제95회 춤향제를 맞이해 고향시립기부제 및 쌀 소비 촉진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춤향제 개최를 맞아 고향시립기부제 및 쌀 소비 촉진에 관한 관심 증대와 기부 둑려를 유도하기 위한 집중 홍보를 위한 것으로, 남원시(시장 최경식), 농협 남원시지부(지부장 오영석), 남원권역보증센터(센터장 이성호) 임직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농협 남원시지부는 건강한 식습관 정립과 우리 쌀 소비 확대를 위한 ‘아침밥 먹기 운동’ 동참 의지를 הד려하며 행사 참가자들에게 고향시립기부제 담례품인 춤향제를 나눠주며 큰 호응을 얻었다.

최경식 시장은 “농촌복지증진을 통해 누구나 머물고 싶은 지속 가능한 남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농협, 쌀 소비문화 확산 ‘떡 나눔 행사’ 실시

무주농협(조합장 곽동열)은 최근 무주예체문화관에서 열린 제38회 무주읍민의 날 행사장에서 쌀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떡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과 더불어 지역사회와의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행사 방문객을 대상으로 떡(꿀떡, 비빔떡) 700개를 나눠주며 우리 쌀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곽동열 조합장은 “우리 농업의 근간인 쌀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농산물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나눔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